

지역 소식통

부안군, 지진안전주간 사전대비 캠페인 운영

부안군은 지진안전주간인 지난 14일 지진의 사전대비와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을 부안종합시외버스 터미널 부안읍내 시가지에서 전단지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펼쳤다.

지진안전주간은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최대규모(5.8)의 경주 지진 발생(16.9.12)을 계기로 2017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부안군도 지난 6월 12일에 규모(4.8)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참여하는 행사이다.

부안군 홈페이지에 지진행동요령 홍보 이미지를 게시하고 읍·면사무소에서도 포스터와 전단지, 팸플릿 등을 통해 직장 회의나 면민회보 배포 시 지진행동요령을 홍보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로컬푸드, 누적매출 100억원 달성 감사 행사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 로컬푸드 오프라인 누적매출 100억 원 달성을 기념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고객 감사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안 로컬푸드를 애용해 온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서민경제의 장비구니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특판 행사는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과 부안 행복장터(부안고려청자휴게소 상행선)에서 진행되며, 사인머스켓, 고구마, 백미 등 제철 농산품과 돼지고기, 계란 등의 품목이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를 통해 부안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고물가 시대에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3만 원 이상 구매한 부안 로컬푸드 회원에게는 장비구니를 무료로 증정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스마트 통합 돌봄도시 모형 '혁신'

정읍시 보건소 · 중앙대, 2024 아시아 혁신 위한 건강노화상 특별상 수상

정읍시 보건소와 중앙대학교가 2024년 아시아 혁신을 위한 건강노화상(Healthy Aging Prize for Asian Innovation, HAAI)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HAAI는 아시아 지역의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일본국제교류센터(JICE)와 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소(ERIA)가 주관하며 일본 정부가 후원한다.

시 보건소는 중앙대학교와 써머리AI와 함께 추진한 '스마트 통합돌봄 도시 모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 지역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ICT 및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통합적인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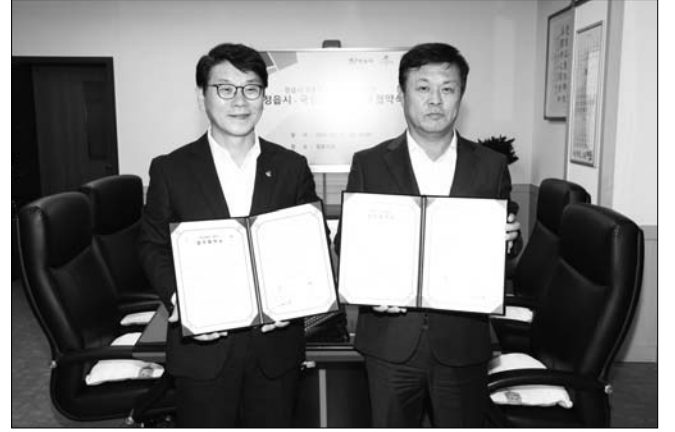
스마트 통합돌봄 도시 모형을 기술과 인적자원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고령자들에게 촘촘한 돌봄마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이 모형을 핵심 요소로는 케어넷(Care-Net) 플랫폼이 있다. 케어넷은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를 통합하고, 전문가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돕는 종합적인 보건복지 융합 플랫폼이다.

또한 AI를 활용한 낙상 위험 예측 및 안부 진화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자들의 일상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이 모델은 기술과 인적 자원을 결합하여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역사회의 시민 건강리더가 중재자로 참여해 고령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공동체 형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정읍시의 노인 돌봄 혁신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ICT와 AI 기술을 활용해 정읍에서 시작된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아시아 전역에서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14일, 내장산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식물의 증식과 보존을 위해 국립생태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생물종 다양성 확보 보전 나설 것"

정읍시, 희귀식물 증식 · 보전 위해 국립생태원과 맞선

정읍시는 14일, 내장산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식물의 증식과 보존을 위해 국립생태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이학수 시장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최승운 센터장이 참석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한 학술조사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내장산에 자생하는 희귀식물인 노랑꽃박의 증식

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서식지와 대체 서식지를 확대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노랑꽃박을 포함한 희귀식물의 증식을 통해 정읍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라며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해 환경 보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사업 선정

디지털트윈 기술 도입... 첨단 도시 관리 체계 구축

정읍시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도시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입, 첨단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의 대상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 지역 약 95km에 대해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하게 된다.

이번에 구축될 고정밀 전자지도는 기존 1:5000 축적 지도보다 5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특히 이 지도는 도로, 건물, 하천뿐 아니라 맨홀, 가로등, 전신주, 신호등, 횡단보도와 같은 세부적인 시설물까지 표시된다. 이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수치지도 중 가장 정밀한 지도로, 공공·민간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항공촬영, 모바일 맵핑 시스템(MMS)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수치지형도(1:1,000), MMS 취득데이터, 항공사진(정사영상), 3차원 공간정보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 입안 및 계획 수립, 도시 계획 및 관리, 인허가 업무, 건설공사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기존의 지도를 훨씬 뛰어넘는 정밀하고 입체적인 3차원 정보를 제공한다"며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도시 계획과 재난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4년 람사르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참석

3일간 중국 동맹시서 개최... 향후 습지도시 발전방안 모색

고창군 김철태 부군수가 15일부터 중국 동맹시에서 3일간 열리는 2024 람사르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전남 순천시를 시작으로 2023년 프랑스 아미앵시에 이어 열리는 3번째 회의다. 도시 간 습지 보전 및 관리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습지도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0개국 23개 람사르습지도시 시장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고창군과 제주시, 창원



군 등 3개 도시가 참여했다. 고창군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타도시와의 양자회담과 고

창군 홍보버스 운영 등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운곡람사르습지의 논둑복원을 통한 습지보전 노력과, 철새들의 주 서식지인 고창갯벌의 현명한 수지 활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양자회담을 통해 습지교육 관련 정책과 방법 등을 공유하고 향후 교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철태 부군수는 "향후 습지도시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고창군이 세계적인 모범 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고병원성 AI 대응 강화... '심각' 격상

정읍시는 지난 2일 군산 만경강 철새도래지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3형)가 검출됨에 따라, 즉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3중 방역 체계가 중심이 된다.

시는 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새로부터 발생하는 바이러스 농장 전파 차단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 △농장 간 확산 방지라는 3중 방역 기조를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AI 차단방역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용계동 거점 세척·소독시설과 가축시장 인근에 임시 거점 소독시설을 추가 운영해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강화하고 있

다. 또한 동절기를 대비해 신대인읍 동진강 철새도래지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출입 제한을 위한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철통 같은 방역을 추진 중이다.

특히 매일 방역방계기를 가동해 철새도래지와 방역 취약 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고위험 농가에는 사육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섰다.

방역 취약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도 병행하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철새로 인한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가금 농가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고병원성 AI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